

2022년 여름방학 권장도서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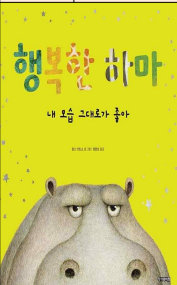

□ 목록

번호	권장 학년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1	유아	간다아아!	코리 R. 테이버 지음	대교북스 주니어
2	유아	미세미세한 맛 플라수프	김지형, 조은수 글; 김지형 그림	두마리토끼책
3	유아	알로, 잠들지 못하는 사자	캐서린 레이너 지음	창비
4	유아	오! 당근	천미진 글; 강효진 그림	발견
5	유아	우르르 광광 폭풍우 치는 밤에는	막달레나 기라오 쥘리앙 글; 크리스틴 다브니에 그림	한울림어린이
6	유아	천천히 해, 미켈레	엘레나 레비 글; 줄리아 파스토리노 그림	여유당
7	유아	풍덩	여름꽃 지음	한림
8	유아	튠립 호텔	김지안 지음	창비
9	유아	행복한 하마: 내 모습 그대로가 좋아	찰스 산토소 지음	작가와비평
10	유아	혼자도 좋지만 둘은 더 좋아	스티브 스몰 지음	봄의정원
1	초등 1-2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위대한 밥상	서정홍 글; 김윤이 그림	다림
2	초등 1-2	늑대의 선거	다비드 칼리 글; 마갈리 클라벨레 그림	다림
3	초등 1-2	모기와 춤을	하정산 지음	봄개울
4	초등 1-2	미어캣의 모자	임경섭 지음	소동
5	초등 1-2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극장	김영미 글; 최용호 그림	보림
6	초등 1-2	소중한 지구의 바다	캐런 브라운 글; 베키 손스 그림	사파리
7	초등 1-2	시큰둥이 고양이	소피 블랙울 지음	주니어RHK
8	초등 1-2	신기한 푸른들	김성범 글; 조경희 그림	품
9	초등 1-2	우리 몸 왜 소중한가요?	리즈 레넌 글; 마이클 벅스턴 그림	곰세마리
10	초등 1-2	작은 어부와 커다란 그물	쉬지 베르제 지음	토끼섬

번호	권장 학년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1	초등 3-4	어린이를 위한 우리말 어감 사전	안상순 글; 최정미 그림	다락원
2	초등 3-4	내가 모르는 사이에	김화요 글; 오윤화 그림	웅진주니어
3	초등 3-4	시간을 굶는 빵집	김주현 글; 모예진 그림	노란상상
4	초등 3-4	여름 숲의 비밀	앨 맥퀴시 글; 레베카 기븐 그림	주니어김영사
5	초등 3-4	예의 없는 친구들을 대하는 슬기로운 말하기 사전	김원아 글; 김소희 그림	사계절
6	초등 3-4	오늘부터 배프! 배프!	지안 글; 김성라 그림	문학동네
7	초등 3-4	유리병 속의 생태계	레이철 이그노프스키 지음	책읽는 곰
8	초등 3-4	전국 2위 이제나	윤미경 글; 김유대 그림	국민서관
9	초등 3-4	탄소 중립이 뭐예요?	장석익 글; 방상호 그림	풀빛
10	초등 3-4	하얀 밤의 고양이	주애령 글; 김유진 그림	노란상상
1	초등 5-6	검은 하늘에 갇힌 사람들	김정희 글; 박은정 그림	그린북
2	초등 5-6	마음 소화제 뽕뽕수	김지영 글; 김무연 그림	국민서관
3	초등 5-6	세금 내는 아이들	옥효진 글; 김미연 그림	한국경제신문
4	초등 5-6	아미골 강아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실종 사건	이선주 글; 정인하 그림	문학동네
5	초등 5-6	(웃으며 지구를 지키는) 어린이 에코 시민 가이드	엘리즈 루소 글; 로베르 그림	북멘토
6	초등 5-6	엄마의 결혼식	윤주성 글; 박지윤 그림	마음이음
7	초등 5-6	여름방학 제주	전정임 글; 김혜원 그림	안녕로빈
8	초등 5-6	역병이 돈다, 조선을 구하라!	한미경 글; 순미 그림	현암주니어
9	초등 5-6	열세 달 은우	장세련 글; 박다솜 그림	산지니
10	초등 5-6	(어린이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안내서	정윤선 글; 우연희 그림	다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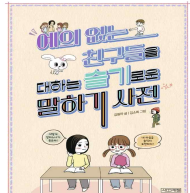

□ 해제


1	유아	간다아아	코리 R. 테이버 지음	대교북스 주니어
	<p>어느 날, 어린 새 멜은 훨훨 날아보고 싶어진다. 잘못하면 까마득한 땅 밑으로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아기 새는 오늘 당장 꼭 날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나뭇가지 아래로 뛰어내린 멜은 그만 똑 떨어졌지고 만다.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람쥐와 꿀벌, 거미, 달팽이, 개미 등등이 모두 멜을 붙잡아 주려고 애썼지만, 모두 실패한다. 결국 물에 텀벙 빠져버린 멜은, 물 속에서 물 바깥으로 다시 솟구쳐 오른다. 오히려 한 번 물에 빠지고 난 다음에는 하늘 위로 쭉 날아오를 수가 있었다. 모든 동물 친구들이 날아오르는 멜을 축하해 준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해보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다.</p>			
2	유아	미세미세한 맛 플라수프	김지형, 조은수 글; 김지형 그림	두 마리토끼책
	<p>플라스틱 천국에는 없는 게 없다. 패딩, 칫솔, 아크릴 스웨터, 샴푸, 수영복 레고, 물병 등등 정말로 많은 것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망가져도 울지 말라고, 작가는 짐짓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 다시 사면 된다고 말이다.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쓰고 버린 플라스틱들은 조그만 알갱이가 되어서 하수도와 비를 타고 즐줄줄 세상 구경을 나간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 물고기는 다시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와서 몸 속에 차곡차곡 쌓인다. 날마다 차곡차곡. 과연 괜찮은 걸까?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는 환경 그림책이다.</p>			
3	유아	알로: 잠들지 못하는 사자	캐서린 레이너 지음	창비
	<p>알로는 사자다. 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잠을 이룰 수 없는, 잠들지 못하는 사자이다. 알로는 정말 피곤하다. 풀밭은 너무 까칠하고 맨땅은 너무 딱딱해서 잠들 수 없다. 나무 위는 너무 시끄럽고 사막은 너무 조용하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다. 잠을 못 자서 기운이 빠진 알로에게 올빼미가 잠이 드는 방법을 노래로 가르쳐 준다. 알로는 올빼미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스르르 잠이 든다. 아침에 알로는 잠에서 깨어 올빼미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간다. 그러자 올빼미가 “지금 너 때문에 잠에서 깨어 버렸잖아!”라고 말한다. 올빼미는 낮에 잠을 자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알로가 올빼미에게 자장가를 불러 준다. 잠에 쉽게 들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따스한 그림책이다.</p>			
4	유아	오! 당근	천미진 글; 강효진 그림	발견
	<p>당근을 싫어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친구들에게 몸에 좋은 당근을 잘 먹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런 고심 끝에 그려진 그림책이다. 당근은 흙 속에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쭉쭉 자란다. 당근은 자기가 자란 고향을 떠나는 게 조금 슬펐지만, 그래도 괜찮다. 아이들을 만나러 갈 거니까. 당근은 여러분에게 아끼는 것들을 다 줄 것이다. 땅에서 얻은 향긋한 마음과 해님이 전해준 빛나는 기운을 모두 가져온 당근. 당근의 여행을 지켜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식탁 위에 올라온 당근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맛있어 보일 것이다.</p>			
5	유아	우르르 광광 폭풍우 치는 밤에는	막달레나 기라오 질리앙 글; 크리스틴 다브니에 그림	한울림어린이
	<p>우르르 광광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다. 무서워진 족제비는 침대에서 일어나 등불을 들고 이웃집 두더지에게 달려간다. “문 열어 주세요! 비오는 밤에는 둘이 함께 있으면 덜 무섭잖아요.”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둘은 다람쥐에게 달려간다. 바람이 휘이잉 불자 셋은 겁이 나서 이번에는 오소리에게 달려간다. 결국 아홉 마리의 서로 다른 동물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그리고 아홉 마리의 동물들은 가장 튼튼한 곰네 집으로 가기로 한다. 곰네 집에 도착하여 열 마리가 된 동물들은 등불을 한가운데 두고 모두가 동그랴게 둘러앉아 따스한 밤을 보낸다. 무서운 일이 있어도 여럿이 함께 있으면 무섭지 않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이다.</p>			

6	유아	천천히 해, 미켈레	엘레나 레비 글; 줄리아 파스토리노 그림	여유당
	<p>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려 지내는 나무늘보는 매우 느긋한 동물이다. 하품 한 번 하는 데 3분이 걸릴 정도로 느긋하다. 하지만 어린 나무늘보 미켈레는 혼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나뭇가지 사이를 뛰어다니길 좋아한다. 나무늘보답지 않다고 걱정하는 아빠가 미켈레에게 말한다. “천천히 해, 미켈레!” 그럼 미켈레의 재주는 아무 쓸모가 없을까? 다름과 다양성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우화의 형식으로 풀어내는 이야기이다. 화려하고 대담한 그림이 이야기의 생생함과 유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p>			
7	유아	풍덩	여름꽃 지음	한림출판사
	<p>여름이 되자 연못 수영장에 물이 가득 찼다. 코끼리, 개구리, 토끼, 병아리 네 친구는 우연히 다이빙 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한다. 제일 먼저 개구리가, 그 다음에는 병아리가, 그리고 토끼가 순서대로 신나게 뛰어내린다. 하지만 덩치가 제일 큰 코끼리는 겁이 난다. 친구들은 그런 코끼리를 위해 연잎 낙하산을 마련해준다. 무엇보다도, 다 같이 뛰어내리면 무섭지 않다! 연못 수영장은 곧 용감하게 뛰어내린 친구들로 가득 찬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이다.</p>			
8	유아	튤립 호텔	김지안 지음	창비
	<p>오늘은 작은 멧밭쥐가 튤립 알뿌리를 심는 날이다. 가을에 알뿌리를 심으면 튤립 알뿌리들은 땅 속에서 겨울을 난다.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성큼 찾아오면 알뿌리에서 싹이 나기 시작한다. 마침내 느지막한 봄 여름의 초입, 튤립의 꽃봉오리가 올라오면 멧밭쥐들은 튤립 호텔을 열 준비를 한다. 마침내 튤립 호텔이 문을 열고, 동물들은 튤립 호텔에서 봄을 맞이한다. 손님들은 밤이 되면 아늑한 튤립 방에서 잠이 든다. 귀엽고 따스한 그림과, 꽃 속에서 잠이 드는 작은 동물들을 그려낸 장면이 특히 아이들의 마음에 쏙 들 것이다.</p>			
9	유아	행복한 하마: 내 모습 그대로가 좋아	찰스 산토소 지음	작가와비평
	<p>히포는 하마다. 아주 평범한 하마다. “휴, 나는 너무 평범해.” 히포는 특별해지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히포는 우연히 등껍질 속에 갇혀 있던 거북이를 구해준다. 거북이는 보답으로 소원 아홉 개를 들어주겠다고 한다. 히포는 첫 번째 소원으로 등껍질을 갖고 싶다고 빌었다.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말로 등껍질이 생긴다. 히포는 차례차례 사자의 갈기, 기린의 목, 코끼리의 코, 악어의 꼬리, 토끼의 귀, 산양의 뿔 등등을 얻게 된다. 히포는 처음에는 신이 났지만, 곧 일은 꼬이고 만다. 마지막 남은 소원 하나로 히포는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 뻔하지 않은 결말로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주는 이야기이다.</p>			
10	유아	혼자도 좋지만 둘은 더 좋아	스티브 스몰 지음	봄의정원
	<p>물을 싫어하는 특이한 오리가 있다. 이 오리는 물 속에서 헤엄치는 것도 싫어하고, 침범거리는 것도 싫어한다. 그리고 비가 오는 것도 당연히 싫어했다. 오리는 집 안에서 책을 읽는 것을 제일 좋아했다. 그런데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어느 날, 오리는 길을 잃은 개구리를 만난다. 오리는 개구리를 집에 데려오고, 둘은 친구가 된다. 나중에 개구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오리에게는 그 무엇도 옛날과 같지 않다. 마침내 오리는 개구리의 집을 찾아가 말한다. “네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쓸쓸해!” 둘은 이제 어느 때라도 혼자서 아니다. 우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p>			

1	초등 1-2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위대한 밥상	서정홍 글; 김윤이 그림	다림
	<p>오늘 점심에 먹은 밥, 어제 저녁에 고기를 싸 먹은 상추, 그저께 부침개를 부쳐 먹었던 밀가루... 우리가 마트에서 사 왔거나 집 앞으로 배송받았던 온갖 음식들은 모두 누군가가 정성을 쏟아 키워내고 길러낸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벼, 감자, 배추 등을 직접 기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 그저 '돈만 있으면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 책을 보며 여러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의 밥상 위에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애썼는지 살펴보자.</p>			
2	초등 1-2	늑대의 선거	다비드 칼리 글; 마갈리 클라벨레 그림	다림
	<p>선거는 왜 하는 것이고, 투표는 왜 해야 할까? 농장 대표를 뽑는 선거에 새로운 후보로 등장한 늑대 파스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왜 선거를 하는지, 왜 투표가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파스칼은 매력적이고, 친절하고, 말솜씨도 좋고, 심지어 미남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런 기준만으로 농장 대표를 뽑아도 괜찮을까? 인간 세계의 모습을 빗댄 우화 형식의 이 그림책은 어린이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대표를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p>			
3	초등 1-2	모기와 춤을	하정산 지음	봄개울
	<p>'애앵 이잉 왜애앵' 캠핑을 떠난 가족의 텐트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바로 모기. 텐트 안에서 모기를 잡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낸 그림책이다. 귀엽지만 익살스럽기도 한 한 가족의 모습들을 재미있는 표정과 몸짓 그리고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로 표현해 놓았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책 마지막 장에는 하정산 작가가 직접 만든 노래도 함께 불러볼 수 있다.</p>			
4	초등 1-2	미어캣의 모자	임경섭 지음	소동
	<p>'전쟁이 멈추고 마을에는 긴 철조망이 생겼습니다. 철조망은 하나였던 땅과 강, 바다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라는 글로 시작하는 이 그림책은, 전쟁으로 인해 달라진 동물들의 삶을 보여 준다. 사람들의 전쟁으로 인해 똑같은 빨간 모자를 쓰게 된 동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패션디자인 경험이 많은 미어캣을 찾아 새로운 모자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한다. 동물들이 원하는 것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과연 미어캣이 만든 모자로 동물들은 예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p>			
5	초등 1-2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극장	김영미 글; 최용호 그림	보림
	<p>지금처럼 볼거리들이 많은 시대에 사는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화를 향유한다. 그 중에서도 영화관은 TV에서 볼 수 없는 웅장함과 스펙터클한 기분을 느끼게 하며 때론 과거의 추억을 소환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힘들었던 시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관객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 온 극장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묵묵히 역사의 무게를 견디며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온 '광주극장'이다. 그림 책 속의 극장을 소개해 주는 고양이 '씨네'를 통해 옛 추억의 영화관으로 함께 떠나보자.</p>			
6	초등 1-2	소중한 지구의 바다	캐런 브라운 글; 베키 손스 그림	사파리
	<p>'여름'하면 생각 나는 단어를 고른다면? 당연히 '바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일 것이다. 바다에서 해수욕을 하고, 모래놀이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바다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다. 이 책은 지구에 존재하는 다섯 개의 바다인 북극해, 대서양, 남극해, 인도양, 태평양에 살고 있는 신기하고 놀라운 생물들에 대해 알려준다. 직접 만날 수는 없겠지만, 여름방학 때 바다로 놀러 가게 된다면 이 책에서 만난 바닷속 친구들을 좀 더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p>			

7	초등 1-2	시큰둥이 고양이	소피 블랙을 지음	주니어RHK
		<p>딱히 외모가 귀엽지도 않고, 뭘 해도 반응이 없고 시큰둥한 고양이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고양이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버려진 고양이를 데려가 키울 때는 외모, 성격보다도 그 고양이 자체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림책 '시큰둥이 고양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이 유기묘 보호소에서 데려온 고양이 '맥스'와 점점 가까워지는 이야기이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이 책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p>		
8	초등 1-2	신기한 푸른돌	김성범 글; 조경희 그림	품출판사
		<p>전라도 곡성 섬진강에 얽힌 '독살' 이야기를 배경으로 그려낸 그림책이다. 섬진강에 사는 도깨비들이 쌓았다고 해서 '도깨비살'이라고도 불리는 독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들려준다. 푸른 강과 노란 도깨비들이 대비되어 시원한 느낌을 주고, 마천목과 잔망스러운 도깨비들의 행동에 웃음 짓게 된다. 도깨비가 나오는 옛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인 책이지만, 무섭거나 기괴하지 않다. 마천목이 섬진강의 푸른돌을 주워가면서 생기는 사건들을 귀여운 그림을 만나보자.</p>		
9	초등 1-2	우리 몸 왜 소중할까요?	리즈 레넌 글; 마이클 벅스턴 그림	곰세마리
		<p>우리 주변에는 편식을 하는 아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는 아이, 감기에 자주 걸리는 아이 등 평소 건강관리의 소홀함으로 잔병을 치르는 아이들이 많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왜 골고루 먹어야 하는지, 왜 자야 하는지, 왜 씻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꾸준한 건강관리 습관 및 삶의 태도에 관한 내용들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가 많다. 일상에서 아이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답하기 수월하도록 그 해답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놓은 건강관리에 관한 책이다.</p>		
10	초등 1-2	작은 어부와 커다란 그물	쉬지 베르제 지음	토끼섬
		<p>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고 때로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여기 책에 나오는 작은 어부도 처음에는 식구 수만큼만 잡힌 물고기에 만족하지만 욕심이 점점 커지면서 그의 커다란 그물은 바다를 훼손하고 결국 주변의 자연환경까지 망치게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나를 둘러싼 자연환경이다. 그것들이 망가지면 결국 나 혼자만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은 없다는 깨달음을 주는 책이다.</p>		

1	초등 3-4	어린이를 위한 우리말 어감 사전	안상순 글; 최정미 그림	다락원
	<p>‘헤엄’ 과 ‘수영’ 의 차이는? 익숙하고 쉬운 단어들이지만 다른 점을 분명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의미는 비슷하나 어감은 다른 말, 그래서 때로 쓰임도 다른 ‘유의어’ 들의 의미를 섬세하게 밝히고 있다. 말맛, 속뜻,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른 단어들을 배치한 후, 각 단어의 용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만화를 수록하여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단어의 차이를 알 수 있게 한다. 각 단어의 속뜻을 깨칠 수 있도록 하는 ‘한 곳 차이’ 와 심화 내용을 담은 ‘더 알아보기’ 까지 활용한다면, 올 여름방학엔 어휘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p>			
2	초등 3-4	내가 모르는 사이에	김확요 글; 오윤화 그림	웅진주니어
	<p>같은 반이지만 각자의 이유로 서로 거리를 두던 세 아이에게 친구의 생일 파티 때 지갑이 사라지고 도둑으로 의심받으면서 얽히게 되는 이야기이다. 한 사건을 두고 세 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시선에서 각자의 입장으로 구분지어 보여주고 있기에 그 마음의 감정들을 조금 더 세심히 들여다 볼 수 있어서 각자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다. 나도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내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들로 친구들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이다.</p>			
3	초등 3-4	시간을 굶는 빵집	김주현 글; 모예진 그림	노란상상
	<p>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기억하고 싶은 순간. 그런 시간을 사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기록할 순 없을까? 시간을 굶는 빵집에서는 사진이 담지 못하는 그 순간의 맛과 냄새, 촉감까지 담아 빵을 만든다. 첫 곶을 넣은 날의 짜릿함도, 복수를 다짐한 어느 날의 쓰라린 마음도 빵 속에 녹아들고, 그렇게 만든 빵을 먹을 때 마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오롯이 살아나는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을 따듯하게 담아낸 책으로, 어떤 시간을 어떤 빵으로 구워낼지 함께 생각하며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냈던 시간을 돌아보게 한다.</p>			
4	초등 3-4	여름 숲의 비밀	앨 맥퀴시 글; 레베카 기븐 그림	주니어김영사
	<p>도시에서 사는 소녀 벨이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다가 자연의 경이로움을 깨닫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에 애정을 갖게 되는 내용의 그림책이다. 자전거를 타고 숲으로 갔다가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진 벨은 말하는 벌을 만나게 되고, 벌과 함께 숲속 곳곳을 돌아다니며 숲속에 사는 곤충, 동물, 식물들과 친구가 된다. 그리고 벌을 통해 자연은 어느 한 부분도 부족함 없이 그 자체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사람도 거대한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무더운 계절, 시원하고 창창한 여름 숲으로 들어가 자연의 일부가 되어 보면 어떨까?</p>			
5	초등 3-4	예의 없는 친구들을 대하는 슬기로운 말하기 사전	김원아 글; 김소희 그림	사계절
	<p>학교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현명하게 나의 자존감을 지키고 슬기롭게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어린이를 위한 인간관계 실용서이다. 초등학교 선생님인 저자가 학교 세계를 관찰해 62가지 상황을 뽑아내고 해결책을 제안한다. 나아가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말하는 법이나 나를 보호하는 말하기에 대해 연습할 수도 있다. 어린이들의 세계를 헤아려야 하는 양육자도 함께 보면 좋을 책이다.</p>			
6	초등 3-4	오늘부터 배프! 배프!	지안 글; 김성라 그림	문학동네
	<p>베스트 프렌드라서, 배프! 배고플 때 맛있는 것을 나눠 먹는 프렌드라서, 배프! 체크카드를 쓰는 유림이가 부러웠던 서진이에게 아동급식카드가 생겼다. 서진이는 그 카드로 배프 유림이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생각에 마음이 들뜬다. 하지만 사용할 수 없는 가게도 많고, 초콜릿도 살 수 없는 까다로운 카드다. “오늘은 내가 쓸게!” 하며 유림이를 분석집으로 데려갔지만 카드가 안 되어 결국 쓰지 못했다. 배고픈 서진이는 어떻게 하면 떡볶이를 먹을 수 있을까? 낙천적인 동심의 힘과 서로 연대하는 삶의 소중함을 그려낸 따뜻한 책이다.</p>			

7	초등 3-4	유리병 속의 생태계	레이철 이그노프스키 지음	책읽는곰
	<p>지구 생태계를 대륙별로 나누고 다시 기후와 지형, 식생대별로 나누어 테라리엄처럼 유리병에 담아 보여 준다. 나아가 생태계의 기본 개념과 단계, 생물의 분류 단계와 상호 작용,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담고 있다.</p> <p>또한 이 책은 내 눈앞에 놓인 이 아름다운 생태계가 금방이라도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글로, 또 그림으로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독자를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든다.</p>			
8	초등 3-4	전국 2위 이제나	윤미경 글; 김유대 그림	국민서관
	<p>제나네 반에는 유명한 악동 최강현이 있다. 아이들을 괴롭히고 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특하면 돌주먹을 흔들어 대고, 선생님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말쑥꾸러기이다. 친구들과 힘을 합쳐 검은개미군단을 결성하여 강현이에게 맞서려던 제나는 결국 망신만 당하게 된다. 이렇게 제나네 반의 평화는 영영 오지 않는 것일까?</p> <p>“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나름이야! 지더라도 한번 해 보는 거야!” 보잘것없던 개미 이제나,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다! 과연 제나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p>			
9	초등 3-4	탄소 중립이 뭐예요?	장석익 글; 방상호 그림	풀빛
	<p>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 오늘날 인류 모두가 가장 긴급하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할 지구촌 최대의 환경문제로 손꼽히고 있는 기후 위기. 기후 위기의 실체는 무엇이고 왜 발생했을까? 지구와 우리 삶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특히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요즘 대유행인 ‘탄소 중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 책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알기 쉬운 답변서이다.</p> <p>현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삶과 운명까지도 판가름할 중대한 문제, 기후 위기와 이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준다.</p>			
10	초등 3-4	하얀 밤의 고양이	주애령 글; 김유진 그림	노란상상
	<p>그림책을 좋아하는 아연이는 작은 월셋집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마음 둘 곳을 잃어버렸다. 아빠는 집을 나가 어딘가를 떠돌고, 엄마는 물류 센터 야간 근무로 인해 늘 피로에 찌들어 있고, 그림책은 집에 둘 자리가 없어서 모두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의 권유로 아파트 작은 도서관을 방문한 아연이는 늦은 밤까지 그림책을 읽으며 마음을 달래고, 도서관 구석에서 새하얀 고양이를 만나 위로를 받게 된다. 외로운 아이 아연이가 하얀 고양이를 통해 치유 받고,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그림책이다.</p>			

1	초등 5-6	검은 하늘에 갇힌 사람들	김정희 글; 박은정 그림	그린북
	<p>주인공 덩딩은 공기 좋은 시골 할머니 댁에 살다가 엄마, 아빠와 함께 베이징으로 이사를 한다. 베이징은 공장과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하다. 학교는 휴교하고, 엄마, 아빠가 일하는 공장도 문을 닫는다. 자동차와 공장과 쓰레기장이 많은 덩딩의 새로운 동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덩딩은 점점 몸이 안 좋아진다.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이다.</p>			
2	초등 5-6	마음 소화제 뽕뽕수	김지영 글; 김무연 그림	국민서관
	<p>연극 '제 멋대로 심청' 역할 뽑기에서 주인공 심청이를 뽑은 예은. 예은이의 친구 지유는 심청이 역을 하고 싶었고 예은이가 심청이 역을 잘못할 것 같으니 본인 역할과 바꾸자고 한다. 예은이는 심청이 역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야하는데 지유가 자기를 미워할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마음이 답답하던 예은이에게 마시지만 해도 속 시원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마음 소화제 뽕뽕수'를 얻게 되고 예은이는 뽕뽕수를 마시게 된다. 과연 예은이는 내 생각을 당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리고 연극은 무사히 마치게 되었을까?</p>			
3	초등 5-6	세금 내는 아이들	옥효진 글; 김미연 그림	한국경제신문
	<p>6학년 '활명수' 반에서는 '미소'라는 화폐를 사용한다. '활명수' 반 학생들은 직업을 선택하여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고, 적금을 들며, 보험도 가입한다. 이 외에도 투자, 경매 등 많은 경제활동이 '활명수' 반에서 이루어진다. '활명수' 반 학생 시우는 돈을 모으기도 잃기도 하는 경험을 통해 서서히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운다. 경제를 글로만 배우지 않고 실생활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초등학생들도 쉽게 경제를 배우고, 올바른 소비 습관을 익힐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p>			
4	초등 5-6	아미골 강아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실종 사건	이선주 글; 정인하 그림	문학동네
	<p>아미골에 사는 민수는 평범한 본인의 이름이 싫다. 그래서 동네 떠돌이 개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민수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미골 곳곳을 누비며 우정을 나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마을에서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 동물원에서 발견된다. 민수는 친구 용찬이와 함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구출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작가는 이 책을 우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 민수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용찬이가 서로의 우정을 맺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에게 우정과 관계의 변화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성장 소설이다.</p>			
5	초등 5-6	(웃으며 지구를 지키는) 어린이 에코 시민 가이드	엘리즈 루소 글; 로베르 그림	북멘토
	<p>'아마도 환경 위기나 기후 온난화, 종의 멸종 같은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 봤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끊임이 없는 단골 소재인 환경을 담고 있는 이 책의 서두다. 매년 환경 관련 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혹여나 우리가 느낄 감정적 해이를 다시금 다잡도록 어루만지며 시작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끔 에코 시민이라는 역할을 부여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경험할 법한 생활 속 행동 중 주의할 수 있는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알려주기 때문에, 읽어보고 스스로를 돌아보기에 좋은 책이다.</p>			
6	초등 5-6	엄마의 결혼식	윤주성 글; 박지윤 그림	마음이음
	<p>엄마의 결혼식을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이 책의 화자이자 사춘기가 한창인 초등학교 6학년 다운이는 그 드문 경험을 앞두고 감정의 파도를 겪고 있다.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영하는 엄마의 재혼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춘기 소녀이자 장녀로서 엄마와의 미묘한 감정 대립을 매우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인공이 햄스터를 입양해 기르면서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을 중심 이야기와 잘 엮어내어 보여주는 게 인상적인 좋은 성장소설이다.</p>			

7	초등 5-6	여름방학 제주	전정임 글; 김혜원 그림	안녕로빈
	<p>여름방학 첫날 나은이는 제주도 양이호텔 초대권에 당첨된다.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을 안고 도착한 제주도. 나은이를 나은이의 첫 제주도 여행의 일기장엔 어떤 이야기들이 쓰여질까?</p> <p>나은이의 설레는 모험 이야기 '여름방학 제주'는 제주도의 문화와 역사를 읽기 쉽고 친근한 이야기와 귀여운 일러스트로 꾸며져 있다. 마치 한여름 밤의 꿈 같은 몽환적인 분위기의 이야기는 책을 읽는 아이들의 제주도에 대해 흠뻑 빠지게 만든다. 제주도 여행을 기획 중이거나 제주도에 가고 싶다면 아이와 함께 읽기 좋은 책이다.</p>			
8	초등 5-6	역병이 돈다, 조선을 구하라!	한미경 글; 순미 그림	현암주니어
	<p>조선시대 코로나가 발생했다면 감염병 대처를 어떻게 했을까? 조선시대에도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을까? 또 환자들을 모아 격리도 했을까?</p> <p>이 책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조선시대 어떻게 감염병에 대처하고 맞서는지 보여준다. 역병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고 방역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등 선조들이 역병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빛나는 지혜·자세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책이다.</p>			
9	초등 5-6	열세 달 은우	장세련 글; 박다솜 그림	산지니
	<p>은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동생 은한이와 함께 살고 있다. 열세 달 동안 월별, 계절별로 은우네 집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아이가 생각하는 세상과 어른이 생각하는 세상의 차이도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에피소드를 통해 가족이 잘 지내려면 서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아볼 수 있다. 일상의 소중함과 행복을 깨달을 수 있는 은우네 에피소드들을 보며 현재 우리 집에는 어떤 행복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기에 좋은 책이다.</p>			
10	초등 5-6	(어린이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안내서	정윤선 글; 우연희 그림	다락원
	<p>2022년이 되어서야 약 2년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길거리의 사람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벗지 않고 있다. 공식적인 정부의 지침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방역에 신경 쓰는 모습은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책은 어린이가 이해하기 쉽게끔 코로나를 발발 시점부터 되돌아 보고 코로나 이후를 20가지의 키워드로 예측해보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팬데믹, 언택트, 원격 수업, 코로나 블루 등 코로나로 인해 대두된 사회 현상들을 통해 코로나 이후 전반적으로 변화될 세상에 대해 준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코로나를 잊지 않고 더욱 잘 알고 대비하기에 적합한 지침서다.</p>			